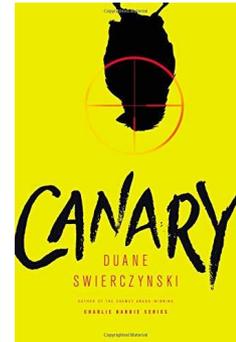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CANARY  
가제 : 카나리아  
저자 : Duane Swierczynski  
출판사: Mulholland Books  
발행일: 2015년 2월 24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소설



#### **착하고 똑똑한 대학 1학년 여학생, 범죄에 휘말려 마약 거래상을 파헤치는 비밀 요원이 되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저녁. 벌써 한겨울처럼 쌀늘한 필라델피아의 어느 집에서는 한 대학교 학생들이 벌인 맥주 파티가 한창이다. 이제 1학년이지만 다가올 시험 준비에 정신이 쏠린 우등생 새리 홀랜드도 파티장에 와 있다. 참석한 이유는 단 하나. ‘파티에서 남들 몰래 술 안 마시는 법’을 연습해보기 위해서다. 마약 중독 등 중독 상담 전문가인 아버지 덕분에 새리는 약이나 술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너무도 잘 안다. 하지만 이렇듯 영리하고 치밀한 그녀의 특별한 능력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길로 데려갈 줄은 아무도 몰랐다. 파티장 한 켠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눌러쓰고 눈에 확 띄는 빨간 바지를 입은 남학생 하나가 새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D. D는 새리에게 호감을 보이고, 친구에게 책을 한 권 받을 게 있는데 좀 태워달라고 부탁한다. 두 사람은 파티장을 나서고, 그는 감사의 표시라며 새리에게 필라델피아 최고의 스테이크를 대접한다.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을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남자가 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마약사범 단속 경찰인 벤자민 와일디. 그는 새리의 차에서 마약 봉지를 찾아낸다. D가 친구에게서 받아 온 것은 책이 아니라 바로 마약이었다. 순식간에 공범으로 몰린 새리. 평소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않고 모범생으로 살았던 그녀의 인생이 한 순간 모두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벤자민이 제안을 하나 한다. 자신을 위해 기밀 정보원으로 일해달라는 것. 달리 선택의 여지도 없이, 새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스캔들에 휘말려 좌천된 후 어떻게든 승진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벤자민 형사는 D가 마약 거래단의 중간 공급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미행 중이었고, 그와 새리를 잘 이용하면 조직의 네트워크를 모두 알아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부패한 경찰, 잔혹한 범죄자들 사이에서 번뜩이는 기지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주인공의 험난한 고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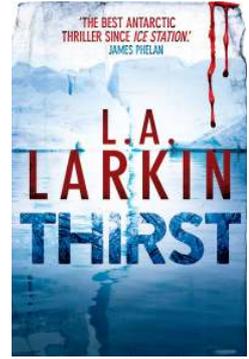
노트북 하나만 들고 얼떨결에 초대형 마약상을 잡기 위한 작전 요원이 된 새리. 하지만 그녀의 번뜩이는 기지와 무엇이든 즉각 이해하고 익히는 학습 능력, 뛰어난 분석력, 비상한 기억력이 힘을 보태자 7,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이 달린 거대 마약 사건의 해결에 가속도가 붙는다. 벤자민은 아직 새파랄게 어린 대학생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것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도록 새리를 재촉한다. 급기야 새리는 그의 성화에 못 이겨 용의자를 잡기 위한 유인책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결국 부패한 경찰과 잔혹한 살인도서슴지 않는 무서운 범죄자들 사이에서 곤경에 처하고 만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구해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새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특유의 고집스러운 끈기와 비상한 머리뿐이다.

치밀한 범죄 소설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작가는 이 작품에서 순수하고 투명한 새리의 시선으로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온갖 위험한 범죄 현장과 야망에 찌든 권력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벤자민과 새리의 아빠, 갑작스레 시작된 누나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는 새리의 열두 살 남동생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따라가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끌어간다.

#### <저자 소개>

듀언 스월진스키(Duane Swierczynski)는 다양한 범죄 스릴러 소설로 잘 알려진 작가로, 《Expiration Date》로 에드가 상 후보에 오르고 앤소니 상을 수상했으며 《Charlie Hardie》 시리즈로는 샐머스 상을 수상하는 한편 앤소니 상, 맥케비티 상, 베리 상 후보에 올랐다. 인기 미국 드라마 CSI 시리즈의 제작자인 앤서니 자이커와 함께 《레벨 26》 시리즈를 함께 완성하기도 했다.

제목 : THIRST  
가제 : 갈증  
저자 : L.A. Larkin  
출판사: Rollicking Read Press  
발행일: 2012년 10월  
분량 : 34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괴한들의 습격을 받게 된 남극의 한 기지, 그들을 옥죄어오는 음모

남극의 파인 섬 빙하. 호주의 연구기지인 호프 기지에서 연구 작업을 하던 맥과 데이브는 정체를 모를 괴한들에게 습격 당한다. 남극조약에 따라 무장을 할 수 없는 데도 이 괴한들은 총을 들고 있었다. 맥과 데이브는 이들의 국적도 알 수 없었고, 이들은 맥과 데이브에게 다짜고짜 연구기지에 무전 했냐는 질문을 한다. 무전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이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두 사람을 크레바스로 떨어뜨려 살해한다. 한편 연구기지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는 루크는 두 사람에게 무전을 해 문제가 없냐고 묻지만, 무언가 의심쩍은 기분을 떨칠 수 없다.

러시아 기지로 잠시 떠나있던 루크는 두 사람이 무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긴급 무전을 전달받고 기지로 되돌아온다. 호프 기지의 대원들은 구출 계획을 세워 그들이 있던 곳 근처의 크레바스를 탐사한다. 그들은 결국 맥과 데이브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들의 장례를 치른다. 슬픔도 잠시, 기지로 돌아온 그들은 통신장비에 이상이 생겨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것을 알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후 꼭두새벽에 캠프가 화염에 휩싸인다. 루크와 연구소장인 매들린은 가까스로 탈출하지만 갑작스러운 화재로 네 명이나 되는 대원을 잃은 그들은 호프 기지의 유일한 생존자가 된다. 루크는 이들을 노리는 살인범들이 있음을 알아채고 매들린과 근처에 버려진 기지로 숨는다.

한편, 이들을 옥죄어오는 우리의 우두머리인 로버트 차오는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 부호 중 하나로서 장군인 아버지와 함께 비밀리에 남극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남극에서 엄청난 양의 희토류광이 매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중국의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남극에 몰래 잠입해 호주 기지 근처 20km 가량의 빙하를 폭파한 후 이를 채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정체를 모를 살인범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된 루크와 매들린은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로 한다. 루크는 러시아 기지로 가 매들린과 외부로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러시아 기지로 가지만, 그 사이 매들린이 괴한들에게 붙잡힌 것을 알게 된다.

### 비밀리에 거대한 남극 채굴을 계획한 조직과 이들과 맞서는 연구원들의 이야기

이들과 조우한 루크는 로버트의 계획을 알게 되고, 빙하를 폭파할 경우 해수면이 급격히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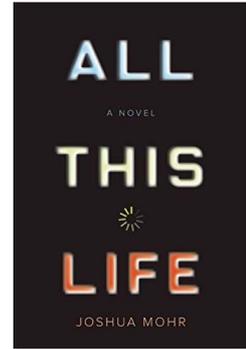
저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면 로버트를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결국 로버트는 폭발물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러시아 기지의 동료인 비탈리와 루크, 매들린 세 사람은 빙하의 좁은 틈으로 탈출을 시도한다. 이들은 안테나를 교란시켜 절반 정도의 폭발물이 폭발되는 것은 막지만, 로버트는 또 다른 안테나를 이용해 직접 거대한 빙하를 폭발시킨다.

악인 로버트 차오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는 가운데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에서 인쇄가 금지되는 난항을 겪기도 한 이 소설은, 남극에 고립된 연구원들의 이야기와 폭발 전 5일 간의 숨막히는 이야기를 빠른 호흡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무시한 채 부 또는 권력에 대한 갈증을 채우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스릴러로, 인물들의 이야기와 줄거리를 잘 어우러지게 한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저자인 LA Larkin은 환경 문제에 대한 스릴러를 집필해온 호주 스릴러 작가이며 이 소설의 집필을 위해 그녀는 직접 남극으로 떠나 크레바스 구조현장이나 남극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을 보고 배우기도 했다. 데뷔작인 <The Genesis Flaw>의 성공으로 기후변화 고문으로서의 생활을 청산한 그녀는 현재 시드니에서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제목 : ALL THIS LIFE  
가제 : 이 모든 인생  
저자 : Joshua Mohr  
출판사: Soft Skull Press  
발행일: 2015년 7월 14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출근길 다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진 동영상과 그 엄청난 여파**  
출근하는 차량들로 꽉 찬 골든게이트 교. 어느 때와 다름 없는 아침 풍경이 펼쳐진다. 간밤에 마신 술이 덜 깨서 몽롱한 얼굴의 사람들,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 열심히 화장하는 여자들, 모두가 지겨운 사무실 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학교에 데려다줘야 하는 아들을 태우고 출근길에 나선 한 남성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런데 다리 위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일이 말이다. 남자의 차 뒷자석에 탄 아들 제이크는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지루한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사진이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조회수를 확인하는 것이 요즘 제이크의 중요한 취미활동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이크의 순간 포착 정신을 번쩍 깨우는 장면이 눈 앞에 펼쳐졌다.

다리 난간에 앉은 갈매기를 찍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요금소를 지나 웬 브라스 밴드가 걸어오고 있었다! 트럼펫 두 명, 색소폰 두 명, 클라리넷 두 명, 트롬본 두 명, 스네어 드럼에 베이스 드럼, 튜바 연주자까지 총 열두 명으로 구성된 밴드는 다리를 오르면서 각자 맡은 악기를 계속 연주하고 있었다. 제이크는 서둘러 '녹화' 버튼을 누르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저만치 멀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연주자들은 간간히 춤도 추고 악기를 위아래로 흔들기도 하면서 신나게 연주를 하고 있었다. 백인, 흑인, 황인까지 구성원의 인종도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한 남녀로 구성된 밴드였다. 제이크만큼 어린 여자도 보였다. 군인처럼 착착 발을 맞추고 행진하는 연주자들, 제이크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흥분된 표정과 뜨겁게 불타는 눈빛을 직접 촬영하다니,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출근길 차량들이 좀처럼 달리지 못하고 기어가는 덕분에, 밴드는 서서히 제이크가 탄 차 앞까지 다가왔다. 마침내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이 제이크가 탄 차와 주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빠르고 발랄한 노랫소리. 듣는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런데, 양볼을 불룩이며 열심히 트럼펫을 불던 연주자 한 사람이 갑자기 대열을 이탈해 걸어 나오더니 천천히 다리 난간을 향해 걸어갔다. 트럼펫을 옆으로 던져버린 그 남자는 난간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양손을 모아 잠깐 기도를 올리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행진을 멈춘 밴드의 남은 연주자들은 연주를 계속했고, 이번에는 클라리넷 연주자가

난간으로 가더니 훌쩍 뛰어내렸다. 그렇게 한 사람씩, 차례차례, 태평양을 향해 몸을 던졌다. 제이크는 꿈인지 현실인지 멍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그 모습을 모두 촬영하고 있었다.

### 기술을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관계, 망가진 인간관계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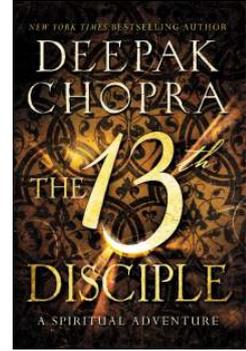
밴드 전체의 끔찍한 단체 자살 장면을 목격하고 동영상으로 기록한 제이크.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리고, 소식은 삼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 그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무심코 올린 영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몰랐다. 실제 세상과 인간이 온라인에 만든 세상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뤄야하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비슷한 시기, 애리조나에 사는 새라에게도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건이 벌어졌다. 큰 이슈가 된 다리 위 자살 장면을 보려고 유튜브에 접속한 새라는, 남자친구가 자신과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사실을 알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영상도 온통 퍼져나갔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수군대며 새라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좁디 좁은 동네에서 그녀를 도와주거나 이해해주는 사람도 하나 없었고, 비난의 눈초리를 피하려면 동영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

작가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현대 사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최신 기술이 어떤 폐해를 몰고 올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하나 같이 우리가 알고 지내는 누군가와 닮은 소설 속 인물들,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두가 엮이고 얽힌 인물들이 악의 없이, 의도치 않게, 순식간에 처한 곤경과 끝없는 추락을 통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모호해진 사회와 기술을 추종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 <저자 소개>

조슈아 모어(Joshua Mohr)는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예술석사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작가로, 최근 작품인 《Damascus》는 뉴욕타임스 등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Some Things that Meant the World to Me》는 2009년 <O Magazine> 선정 최고의 책 10권 중 하나로 선정되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Termite Parade》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중 '편집자가 선택한 도서'로 선정됐다.

제목 : 13th DISCIPLE  
가제 : 열 세 번째 제자  
저자 : Deepak Chopra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15년 3월 3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 사라진 수녀가 남긴 중세시대 성물함과 의문의 손가락 뼈, 예수의 실체에 관한 숨겨진 진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디팩 초프라가 엮어낸 예수의 또 다른 제자와 비밀 조직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마가렛 토머스 맥기어리 수녀가 수녀원에서 홀연히 자취를 감추는 일이 발생하고, 그녀가 남긴 물건을 정리하러 온 조카딸 메어는 금으로 된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열세번째 제자가 남긴 것. 이 물건이 이끄는 대로 따를 것.’ 상자에는 이렇게 알 수 없는 문구가 손글씨로 남겨져 있었지만, 메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사라진 이모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메어는 이 단단한 상자의 실체가 먼 옛날부터 전해진 성물함이며, 그 속에 담긴 비밀은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놓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특종에 목이 마른 젊은 기자 프랭크도 메어와 함께 성물함에 얽힌 이야기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다. 프랭크 역시 처음에는 제 2차 대전 당시 도난 당한 수많은 보물 중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그 상자는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담긴 물건으로 드러난다.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이 성물함 속에는 작은 금 상자가 들어 있고, 그 속에는 신성한 유물이 숨겨져 있다. 이름 모를 성인의 손가락 뼈 하나였다. 교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유해가 이렇듯 신성한 유물로 간직된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낸다. 어느 소규모 집단만 아는 비밀, 그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위험한 비밀은, 바로 이 유물을 만지는 사람의 눈 앞에 신성한 환영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기 직전, 그와 우연히 만났던 어린 여자아이에 관한 환영이었다. 이 신비한 사실을 아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은밀한 비밀 조직을 구성하여 이 사실을 오래 전부터 숭배된 지혜로 여기며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왔다. 그 어린 소녀와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대단히 흥미롭고 놀라운 내용이지만, 종교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므로 세상과 공유할 수는 없었다.

### 가장 진실된 제자로 알려진 예수의 13번째 제자와 비밀 조직, 예수와 믿음을 재조명한 이야기

호기심이 많았던 한 어린 소녀가 우연히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였다. 이 예수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진 소녀는 조사에 착수했고 그녀가 찾아낸 진실이자 비밀 조직이 오랫동안 지켜온 그 진실은 지금 널리 인정받는 복음의 내용과 판이하게 다르다. 과

연 이 미지의 소녀가 예수의 마지막 제자이자 가장 진실된 제자라고 알려진 열 세 번째 제자일까? 메어와 프랭크는 작은 성물함을 단서로 삼아 폐쇄된 작은 공동체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괴짜 주부 릴리스와 숨겨진 과거가 있는 지독한 영세가 칼렌, 암울한 삶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병원 잡역부 지미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힘을 보탠다. 숨가쁘게 전개되는 이야기와 성경과 신학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통해 예수와 그를 추종한 사람들의 진실과 믿음 자체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만한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디팩 초프라(Depak Chopra)는 하버드 대학 의학박사를 취득한 의사이자 문학가로, 80권이 넘는 소설, 비소설 도서를 집필한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의 작품은 43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됐다.

## NON-FICTION

제목 : WHEN DIGITAL BECOMES HUMAN

가제 : 인간을 닮은 디지털

저자 : Steven Van Belleghem

출판사: Kogan Page

발행일: 2015년 4월 28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기술



### **인간의 '여섯 번째 감각'이 된 디지털 기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소비자들이 특정 업체나 그 업체의 상품, 경쟁 업체와 상품에 관한 무수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경험을 회사와 제품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든든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시장조사에서, 업체가 소비자와 접촉하고 만날 수 있는 디지털 경로를 마련하고 그 경로가 탄탄하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사람과 실제로 대면하고 싶다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73 퍼센트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 사회에 새로 등장한 관계, 즉 디지털 기술로 형성되는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계의 가장 중요한 두 자원으로 꼽히는 인적 자원과 디지털 기술력을 결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사람은 이미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졌고, 이제 디지털이 사람을 닮아갈 시점이 왔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술이 여섯 번째 감각이 된 이 시대에 기술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삶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디지털화는 더 빠르게, 더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한 가정이 보유한 인터넷 접속 기기는 3대라는 통계가 있는데, 2020년이면 이 숫자가 최소 10대로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전화, 자동차는 물론이고 커피머신, 신발, 냉장고 등 웹으로 더 많은 기기와 장비가 연결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소비자와 업체의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셀프서비스와 자동화, 스마트 데이터나 업체의 사전예측 서비스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소비자 관리 방식은 더욱 확대되어 오히려 그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날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기업이 소비자 관리 방식을 디지털 기술로 전환시키기만 하면 될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기술도 소비자의 마음과 진심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단언한다. 즉 소비자와의 관계에

서 ‘사람’이 하는 역할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사람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일, 창의력, 공감, 열정을 보여주는 일은 컴퓨터가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 **디지털 기술이 점차 확대되는 시대, 사람을 닮은 기술로 기업과 소비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법**

디지털 시대, 소비자 관리의 핵심은 기술과 인적 자원의 적절한 조화이며, 저자는 이 책에서 그 전략을 단계적으로 소개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소비자와 기업 관계의 미래’, ‘디지털화’, ‘사람을 닮아가는 기술’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1부 ‘소비자와 기업 관계의 미래’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변화 전망과 핵심 기술, 각 기업이 새롭게 정립해야 할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조명한다. 2부 ‘디지털화’는 주요 디지털 기술의 특징과 특정 요소를 세분하여 우리 생활에 이미 침투했거나 앞으로 일상생활이 될 주요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전자 상거래의 문제점,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일들, 셀프 서비스와 자동화 기기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 빅데이터의 한계를 짚어본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삶에 익숙해진 시점에서 그 동안 파악된 기술의 단점들,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것을 뛰어넘거나 보완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3부 ‘사람을 닮아가는 기술’은 2부와 반대되는 시각에서 이제 기술이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마케팅(heartketing)의 엄청난 시장 가치, 실제로 이 전략을 선구적으로 도입하여 큰 성과를 얻은 사례들, ‘클라우드 소싱’으로 알려진 다양한 인적 자원이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등이 제시된다. 아마존, 도요타, ING, 나이키, 스타벅스 등 소비자 관리 방식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바꾼 사례들, 디지털 기술에 ‘감정’을 담는 방법에 관한 명료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책으로, 기업의 향후 경쟁력 향상과 경영 효율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지침서다.

### **<저자 소개>**

스티브 반 벨러험(Steven Van Belleghem)은 연구조사 기관인 ‘InSites Consulting’의 공동 대표를 지내고 현재 겐트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첫 번째 저서 《The Conversation Manager》는 2010년 가장 혁신적인 마케팅 분야 도서로 호평을 받으며 다양한 상을 수상했고 20만 부 이상 판매됐다.

제목 : MESS: A Writer's Struggle to Clean up his House and his Act

가제 : 난장판 - 집과 삶을 대청소하려는 어느 작가의 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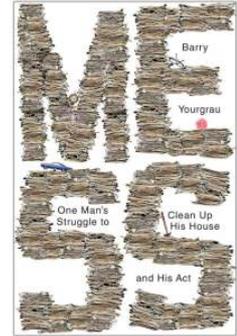
저자 : Barry Yourgrau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2015년 8월 10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집안 가득 물건을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지독한 수집가들, 그 별난 습관을 철저히 파헤친 책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 곳곳에 쥘어두는 사람들. 이 문제는 요즘 들어 TV에서도 가족 중에 병적으로 물건을 모아서 고민이라는 사연이 공개되거나 고물상을 연상시킬 정도로 온갖 물건을 쌓아두는 바람에 온 동네에 괴짜로 소문난 사람들이 심심찮게 등장할 정도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는 주제가 되었다. 단편 작가이자 배우, 공연 예술가로 유명한 저자도 바로 그런 ‘물건 수집가’ 중 한 사람이다. 지나친 수집벽으로 영망진창이 된 집안 꼴 때문에 여자 친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저자는 이 책에서 난장판이 된 집안과 자신의 삶을 모두 정리하려는 자신과의 싸움과 고통을 고스란히 전한다. 수상한 시선으로 지저분한 수집 물품과 실태를 고발하는 대신, 날카로운 유머 감각과 진지하면서도 웃음을 자아내는 내적 고민, 자기 성찰을 통해 저자는 물건을 모으는 습관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몇 가지 물건쯤은 쥘어두는 습관이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고민과 변화는 뉴욕 퀸스에 위치한 저자의 아파트에 난데없이 찾아온 여자친구 때문에 시작되었다. 음식 평론가인 여자친구 코시마와 저자는 5년간 연애를 하면서 이스탄불, 홍콩, 상파울로까지 전세계를 돌며 케밥이며 딤섬,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을 섭렵하고 다녔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단 한 번도 함께 한 적이 없었다. 코시마와만 그런 건 아니다. 저자는 아파트에 다른 친구들도 오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건물 관리인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방어하며 살았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의 지독한 수집벽 때문이었다. 집안에 잔뜩 쌓인 물건들을 보면 사람들이 보면 기절초풍하고 혐오스러워할 것임을 잘 알기에, 그는 점점 더 외부인의 출입에 민감해졌고 지나친 적대감까지 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그 날, 코시마가 집에 열쇠를 두고 나왔으며 갑자기 찾아와 현관벨을 누르고 좀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순간 저자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다. “안돼, 문을 열어줄 수는 없어!” 안에서 절박하게 외쳐보지만, 영문도 모르는 그녀가 그 말을 이해할 리는 만무하다. “왜? 왜 못 들어가게 하는건데?” “당신이 집안을 안 봤으면 해서 그래!” 이상한 대화가 이어지고, 결국 저자가 어쩔 도리가 없이 문을 열자 문 틈새로 잠깐 집안을 본 코시마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자신이 따로 가지고 있던 그녀의 아파트 열쇠만 다급히 쥐어주고 문을 닫아버린 그는 그 때부터 깊은 고민을 시작했다.

**열혈 수집광임을 인정하는 한 남자, 무질서한 집안과 인생을 싹 정리하려는 기막힌 노력과 탐구**

저자는 자신의 집안 상태를 ‘우유부단함과 무질서가 만나, 토끼가 번식하듯 물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로 정의하고, 이걸 단순한 소비 심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깨진 파스타 접시며 전 세계 호텔에서 모은 문구용품, 발렌타인 카드들, 휴가지에서 물건 사면서 받은 쇼핑백 등 그에게는 집안 가득 쌓인 모든 물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추억과 기억, 그 순간의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지독한 수집벽에 관한 저자의 고민은 전문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어진다. 의학계가 제시하는 치료 방법들, 새로 등장한 심리 치료를 비롯해 뇌과학적인 해석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도 한다. 그리고 역사적 기원에 대한 탐구, 물건을 모으는 성향과 창의력의 관계에 관한 고찰, 수집 습관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하는 고민 등 다양한 갈래로 퍼져 나간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대해 이야기하듯 거침없이 드러내는 저자의 솔직한 심정과 생각들,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과묵한 습관을 옹호하다가도 문제의 심각성을 유머러스하고도 날카롭게 꼬집으며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한 대상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베리 유어그라우(Barry Yourgrau)는 《The Sadness of Sex》, 《Wearing Dad's Head》 등 여러 단편 선집을 발표한 작가로 그의 저서는 <파리 리뷰(Paris Review)>, <스토리(Story)> 등 다양한 매체에 소개됐다.

제목 : LANDSCAPES OF COMMUNISM

가제 : 공산주의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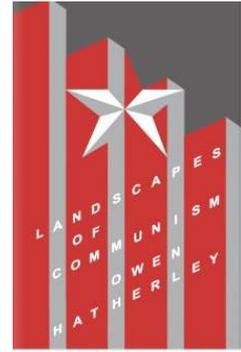
저자 : Owen Hatherley

출판사: Allen Lane

발행일: 2015년 5월 26일

분량 : 592 페이지

장르 : 역사, 건축



### 20세기 동유럽을 휩쓴 공산주의, 도시 곳곳에 남은 거대한 권력의 흔적과 의미

동유럽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킬까? 스탈린, 슈타시로 불리던 비밀 경찰도 떠오르고 냉전 시대 스파이 활동과 칙칙한 회색 빛 차가운 풍경도 떠오른다. 현대로 거슬러 올라오면 유난히 발달한 성 산업과 무수한 이민자들의 모습도 떠오르리라. 동유럽의 건축과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이든 규모가 크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은 ‘소비에트’, ‘동구권’이라는 표현으로 격하시키는 경우가 많다. 문화평론가로 널리 알려진 저자는 이 책에서 그 고정관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동유럽 지역의 건축 양식은 20세기에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된 정치적 실험 두 가지, 즉 1945년 이후 해당 국가들에서 전면 시행된 사회주의와 1989년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저자는 바르샤바부터 베를린, 키예브, 모스크바 등 곳곳을 돌며 유럽 동부 지역에 건설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로, 기념비적인 건축물, 거대한 광장, 이제는 다 부스러져가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살펴보고, 각 건물이 처음 만들어진 배경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짚어본다. 더 불어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공산주의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동부 유럽을 점차 장악하고, 그 사상에 맞게 도시의 풍경을 새롭게 바꾸어놓았다. 프랑스 행정관 조르주외젠 오스만이 추진한 파리의 도시 미화, 도로 계획 사업을 완전히 뒤집고 비엔나, 베를린, 성 페테르부르크의 도시 계획에도 모두 공산주의의 입김이 불어닥쳤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대형 도로와 고층 빌딩, 광대한 주거지역까지 ‘비자본주의’라는 사상이 곳곳에 배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이제는 공산주의 사상이 그 막대한 영향력을 잃었지만, 동유럽 여러 도시에 남은 건축물들에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며, 공산주의 붕괴와 자본주의 도입으로 삶이 산산히 부서진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혼란과 피폐한 생활도 그대로 담겨 있다. 공산주의는 어떤 종류의 도시들을 건설했을까? 공산주의 체제는 사람의 주거지, 일터, 만남의 장소가 될 공간과 건물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자본주의 체제와 다른 형태를 만들기 위해 건축학적으로 어떤 점에 주목했나? 그들이 완성한 건축물 속에서, 공산주의의 정수를 찾을 수 있을까? 저자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한 때 가장 화려했던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 도시 풍경과 그 속의 건물들, 사람들의 흔적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 **‘획일적’이라는 오명과 달리 다양한 구조와 형태의 공산주의 시대 건축 특성을 찾아가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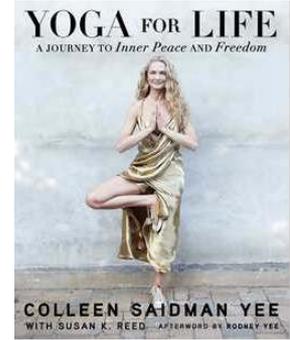
1장에서는 193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이들 도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거대한 대로와 거리를 살펴본다. 이는 주로 화려한 행진을 위해 마련되어 대형 광장과 연결되며 모든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가장 큰 공공시설로 대표된다. 2장의 주제는 주거지역이다. 부다페스트, 프라하 등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그림 같은 풍경의 도시 속에 가득 담긴 커다란 적대감과 비인간적인 분위기의 뿌리를 찾아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주거 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 폭넓은 시각에서 그 특징을 짚어본다. 3장은 ‘사회적 밀집소’로 풀이되는 공공건물들로 초점을 옮겨 소비에트에서 공공 모임의 목적과 역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한 독특한 건물들의 구조와 종류를 자세히 알아본다. 공공건물의 각 구역이 어떻게 세분되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4장 ‘고층빌딩’, 5장 ‘지하철’에 이은 6장 ‘재건’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독일을 보면서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그 외 동부유럽 국가들이 ‘현대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변화를 꾀했으며 그 결과 어떠한 형태의 건물들이 나타났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이어지는 7장에서는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자본주의가 밀려 들어온 동부 유럽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주거를 위해 서둘러 지은 다양한 건축물들에 주목한다. 완전히 다른 체제가 흘러 들어오면서 기존 체제와 접목된 독특한 형태의 상업 시설들이 생겨나 도시 풍경이 낯설게 바뀌기 시작했다. 저자는 지금도 남아 있는 그 흔적을 살펴보면서, 시대적 의미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8장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공산주의 사회의 기념비, 기념관을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풍성한 사진 자료와 함께 현대인의 시선에서 건축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옛 공산주의 국가와 도시에 남겨진 힘과 권력의 흔적, 그 영향력을 고찰하고, 대부분 획일적이라고 생각하는 통념과 달리 동유럽 도시의 모습이 구석구석 얼마나 다채로운지 보여주는 책이다.

#### **<저자 소개>**

오웬 하터레이(Owen Hatherley)는 <가디언>, <뉴 스테이츠맨>, <런던 북리뷰> 등에 도시화, 건축, 정치, 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기고하는 젊은 작가로 《Militant Modernism》, 《A Guide to the New Ruins of Great Britain》 등 여러 편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YOGA FOR LIFE  
가제 : 삶을 위한 요가  
저자 : Colleen Lee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5년 6월 2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건강, 에세이



### 화려한 모델로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여성이 전하는 요가의 신비한 치유력과 인생을 바꾸는 힘

헤로인이라는 위험한 약에 기대 살던 반항적인 생활부터 전 세계를 돌며 패션 모델로 살던 날까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저자가 책을 통해 요가에서 비로소 찾은 치유의 힘을 전하고 다양한 요가 동작을 소개한다. 현재 이 순간의 기쁨과 슬픔을 오롯이 느끼는 것, 그 이상의 쾌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자는 독자들도 자신과 같이 요가를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과감히 들여다보고 수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책을 완성했다고 전한다. 그녀는 늘 불안했던 삶,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게 만들었던 발작 장애, 불행했던 첫 결혼생활과 이혼의 아픔까지 험난했던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요가 속에 삶의 가장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답이 모두 담겨 있다고 단언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담과 그 과정에서 느낀 생각들과 더불어 살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갖가지 문제와 불안감을 어떻게 요가로 해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준다. 책은 근원, 트라우마, 중독, 용서, 자신감, 일깨우기, 봉사, 혼돈, 공포, 기대감, 진실, 사랑, 여성, 평화까지 각자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나 이제 그만 버리고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 상태 등을 각각 주제로 삼아 총 14부분으로 구성되어 각 장마다 상황에 맞는 요가 시퀀스(연속동작)를 소개한다. 호르몬으로 인한 급격한 기분 변화를 개선시키고 몸 전체의 해독 작용 강화하는 동작, 우울증과 스트레스 해소 동작, 자신감과 에너지를 키우는 동작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요가 자세를 배울 수 있다.

현재 신다섯인 저자는 20년 가까이 수천 명의 수련자들을 만나 요가를 지도해 왔다. 그 시간들을 통해 걸로 보기에 당당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과거에 겪은 고통스러운 일이나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에 갇힌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듣고 목격해왔다. 그리고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요가는 각자 내면에서 자유로움과 즐거움, 감사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가로막는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게 이끌어주고, 스스로 시야를 넓혀 해결의 열쇠를 찾고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게 해주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음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급격한 기분 변화, 우울증,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해소해줄 요가 동작들**

각 장에서 소개되는 요가 시퀀스는 신체, 마음, 정서적으로 특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몸에 집중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마다 같은 자세에서도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끼고 더 깊이 명상할 수 있는 요소는 다를 수 있다. 저자는 반드시 매트를 깔고 옷을 갖춰 입고 제대로 동작을 완성하는 것만이 요가는 아니며,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에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잃지 않는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 또한 요가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책에서는 각 장마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솔직한 삶의 이야기가 먼저 소개된 후 여러 해 동안 그녀와 요가 전문가인 남편이 함께 개발한 특별한 요가 시퀀스가 소개된다. 우선 각 시퀀스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면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사진으로 모든 동작을 보여주고 각 동작의 이름을 제시하여 누구나 책을 펼쳐놓고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진정 살아있는 기분, 현재 순간을 즐기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조언이 가득한 책이다.

#### <저자 소개>

콜린 세드먼 이(Colleen Saidman Yee)는 세계 최고의 패션모델로 일하다가 1999년부터 요가를 지도해 온 전문 강사로 현재 뉴욕에서 남편과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요가와 관련된 다양한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녀가 개발한 'Urban Zen Integrative Therapy Program'은 미국 여러 지역의 건강관리 전문 시설에서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목 : THE MANAGEMENT SHIFT

가제 : 경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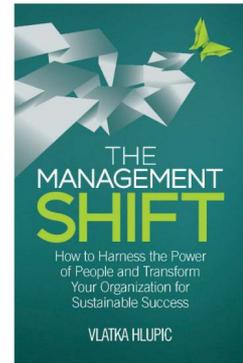
저자 : Vlatka Hlupic

출판사: Palgrave Macmillan

발행일: 2014년 10월 28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영



## 오래 살아남는 기업, 전통적인 리더십 대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영 방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한 조사에서, 지난 50년간 기업의 기대수명이 무려 75 퍼센트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기업은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한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주 논의되지만, 정작 업무 참여도를 개선시키고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고 회사 구성원과 회사 자체가 가진 숨겨진 강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 확고한 모델을 구축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이 책은 바로 이 부분을 채워주고, 더 나아가 새로운 사고 방식과 업무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영 변화’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저자는 이제 기업은 사람, 목적, 지식에 초점을 둔 리더십을 채택해야 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혁신과 참여를 이끌어 사업 전체를 개선해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반적인 계층 구조, 경영진이 ‘명령과 통제’를 도맡는 방식은 급속한 변화, 예측 불가능성, 세계적 규모가 특징인 현재의 경영 환경과 전혀 맞지 않다. 저자는 폭넓은 연구조사와 자문 경험을 통해, 기업의 가치, 혁신, 직원 고용 기회가 모두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먼저 1장에서는 새로운 경영 방식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조직의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관리에 관한 과거 이론의 심각한 오류와 부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2장, 3장, 4장에서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살펴본다. 조직 변화와 혁신, 고용, 가치 창출의 기회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방식을 채택하려면 기업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다양한 실제 사례부터, 단계별 도입 방식까지 자세히 소개된다. 5장과 마지막 6장에서는 실제로 경영 변화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더불어 저자가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한 ‘6 박스 리더십 모델’이라는 실천 모델이 제시되는데, 실제로 전 세계 다양한 규모의 민간 기업과 공공 단체 20곳 이상에 적용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된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경영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고, 기업 입장에서는 급진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변화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현재 리더십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계획, 계획 달성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는 책**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 실제 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이것이 이 책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경영 변화를 위한 마음가짐과 조직 문화의 변화를 결심하고 기업과 기업 구성원 모두의 미래를 위한 변화에 성공한다면, 보다 큰 시각에서는 기업이 속한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각 기업이 어떤 모습이 되고자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틀을 잡도록 도와주는 한편, 수많은 사례 연구와 변화가 가진 힘을 입증한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각 기업이 현재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고 사고의 수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업 전체의 성공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변화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변화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깨닫고, 변화라는 목표를 위해 진지하게 뛰어든도록 이끌어주는 지침서다.

**<저자 소개>**

블라트카 흘루픽(Vlatka Hlupic)은 웨스터민스터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로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를 잇는 새로운 지식경영을 위해 조직된 '드러커 소사이어티'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다. 전 세계적으로 160편이 넘는 학술 자료를 기고하고 발표했으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BP 등 대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경영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다.

제목 : TEN POEMS SERIES

TEN POEMS TO CHANGE YOUR LIFE / TEN POEMS TO SET YOU FREE / TEN POEMS TO LAST A LIFETIME / TEN POEMS TO CHANGE YOUR LIFE AGAIN AND AGAIN / TEN POEMS TO OPEN YOUR HEART

가제 : <열 편의 시> 시리즈

당신의 삶을 바꿀 열 편의 시 /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 편의 시 / 평생을 함께할 열 편의 시 /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바꿀 열 편의 시 / 당신의 마음을 열어줄 열 편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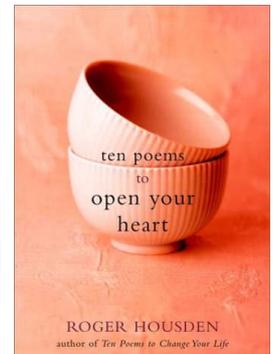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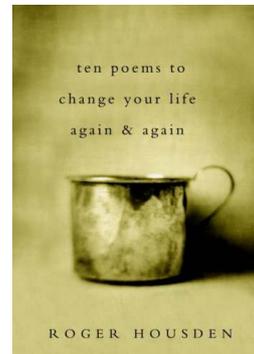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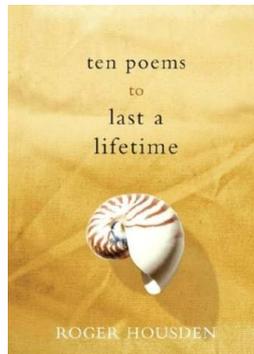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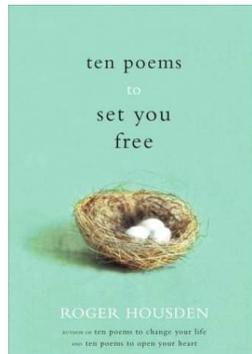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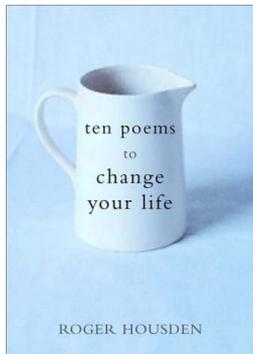
저자 : Roger Housden

출판사: Harmony

발행일: 2001년 1월 / 2003년 2월 / 2004년 10월 / 2007년 11월 / 2007년 12월

분량 : 144 페이지 / 144 페이지 / 144 페이지 / 160 페이지 / 154 페이지

장르 : 시 모음집



각 주제에 대한 열 편의 시와, 저자의 짚막한 해설을 담은 시 모음집 시리즈

TEN POEMS TO CHANGE YOUR LIFE (당신의 삶을 바꿀 열 편의 시)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열망해 왔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감을 주는 시 열 편을 소개한다. 우리가 안전하고 계획된 지점을 벗어나 기쁨과 고통 속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시들은, 인류의 정신과 마음을 흔든 욕망을 보여준다. 호기심에 눈뜬 사람과 사랑에 대한 갈망,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 같은 공통의 주제를 다루는 이 시들에 대해 저자는 자신의 느낀 것과 시에 대한 소개를 덧붙인다.

THE JOURNEY by Mary Oliver

LAST NIGHT AS I WAS SLEEPING by Antonio Machado

SONG OF MYSELF (excerpt) by Walt Whitman

ZERO CIRCLE by Rumi

THE TIME BEFORE DEATH by Kabir

ODE TO MY SOCKS by Pablo Neruda

LAST GODS by Galway Kinnell

FOR THE ANNIVERSARY OF MY DEATH by W. S. Merwin

LOVE AFTER LOVE by Derek Walcott

THE DARK NIGHT (excerpt) by St. John of the Cross

**TEN POEMS TO SET YOU FREE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 편의 시)**

당신만의 것인 지금의 삶. 자유롭게 이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현재의 세상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거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의미가 있는 것들을 놓치기가 쉬워졌다.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는 우리가 살지 못했던 삶을 아쉬워한다. 저자는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열 편의 시를 소개하며, 시인이 담아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에세이를 담아내었다.

SELF-PORTRAIT by David Whyte

LAKE AND MAPLE by Jane Hirshfield

THROW YOURSELF LIKE SEED by Miguel de Unamuno

UNFOLD YOUR OWN MYTH (excerpt) by Rumi

HAVE YOU EVER TRIED TO ENTER THE LONG BLACK BRANCHES? by Mary Oliver

THE LAYERS by Stanley Kunitz

SO MUCH HAPPINESS by Naomi Shihab Nye

THE GOD ABANDONS ANTONY by C. P. Cavafy

THANK YOU, MY FATE by Anna Swir

IN SILENCE by Thomas Merton

**TEN POEMS TO LAST A LIFETIME (평생 함께할 열 편의 시)**

진정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삶과 죽음, 행복과 우리의 관계를 되짚어볼 수 있게 하는 시들을 통해 저자는 독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만한 시를 소개한다. 독자들이 잘 알지 못할 만한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를 발굴해내어 해설을 곁들이고, 보너스로 한 편의 시가 추가되어 열 한 편의 시를 담은 이 책은, 아름다운 안내서이자 멘토가 될 것이다.

MY LIFE by Billy Collins

ECSTASY by Hayden Carruth

WEATHERING by Fleur Adcock

SUNSET by Rainer Maria Rilke

FOR THE SAKE OF STRANGERS by Dorianne Laux

SONG OF A MAN WHO HAS COME THROUGH by D. H. Lawrence

LYING IN A HAMMOCK AT WILLIAM DUFFY'S FARM IN PINE ISLAND, MINNESOTA by James Wright

TO AUTUMN by John Keats

THE ART OF DISAPPEARING by Naomi Shihab Nye

THE MIND OF ABSOLUTE TRUST (Excerpt) by Seng-Ts'an

WHEN DEATH COMES by Mary Oliver

**TEN POEMS TO CHANGE YOUR LIFE AGAIN AND AGAIN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바꿀 열 편의 시)**

<우리의 삶을 바꿀 열 편의 시>의 새로운 판인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할, 우리를 이끌어줄 열 편의 시를 소개하며 이 시들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유명 작품들과 저자가 발굴해낸 시인들의 시 열 편은, 현재에 충실하고 스러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여정이 곧 목적임을 아는 것 등의 교훈을 보여준다.

SONNETS TO ORPHEUS, Part Two, XII by Rainer Maria Rilke

GATE C22 by Ellen Bass

EACH MOMENT A WHITE BULL STEPS SHINING INTO THE WORLD by Jane Hirshfield

LEAVING MT. MALDY by Leonard Cohen

WHAT THE LIVING DO by Marie Howe

A BRIEF FOR THE DEFENSE by Jack Gilbert

WHAT TO REMEMBER WHEN WAKING by David Whyte

WITH THAT MOON LANGUAGE by Hafiz

AWAKEN AS THE BELOVED by St. Symeon the Theologian

ITHAKA by C. P. Cavafy

**TEN POEMS TO OPEN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열어줄 열 편의 시)**

마음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고 세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사랑에 대한 시 열 편을 담고 있는 이 책에서는 타인을 향한 연민부터 연인과의 사랑까지 아우르는 사랑에 대한 시들을 통해 사랑의 기쁨과 아름다움, 슬픔 등을 보여준다. 메리 올리버와 파블로 네루다 등 <우리의 삶을 바꿀 열 편의 시>에 수록된 시인의 다른 시들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을 꿰뚫을 시들과 저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WEST WIND #2 by Mary Oliver

THE KNOWING by Sharon Olds

SAINT FRANCIS AND THE SOW by Galway Kinnell

LOVE AT FIRST SIGHT by Wislawa Szymborska

LOVE by Czeslaw Milosz

KINDNESS by Naomi Shihab Nye

THE ACHE OF MARRIAGE by Denise Levertow

LOVE SONNET LXXXIX by Pablo Neruda

THE THIRD BODY by Robert Bly

BUOYANCY by Rumi

**<저자 소개>**

저자인 Roger Housden 은 열 편의 시 시리즈 저자이며 <Dancing with Joy>, <Seven Sins for a Life Worth Living>, <Risking Everything> 외 많은 저서를 집필해왔다. 그는 <가디언> 지의 프리랜서 피쳐 기고자, BBC의 인터뷰어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1997년부터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시와 예술, 여행에 대한 20여권의 책을 집필했고 2014년 < Keeping the Faith Without a Religion>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1998년에 미국에 이민을 온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마린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